



# 인천적십자병원

34년간 지역사회 의료의 등불

전쟁의 포연이나 수재민들의 피해복구현장에 예외 없이 나부끼는 적십자의 선명한 깃발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사랑과 박애와 봉사로 수많은 인류의 등불이 되어온 적십자 정신.

인천적십자병원(원장 李秉化)도 이러한 적십자정신을 바탕으로 사랑과 인술을 펴오는 곳이다. 1950년대 후반, 영세민 진료를 위한 적십자 의료기관 학충계획에 의하여, 6·25의 전흔이 채 가시지않아 국내경제와 사회적 불안정으로 극히 어려웠던 시기에 개원하여 지난 34년 동안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진료에 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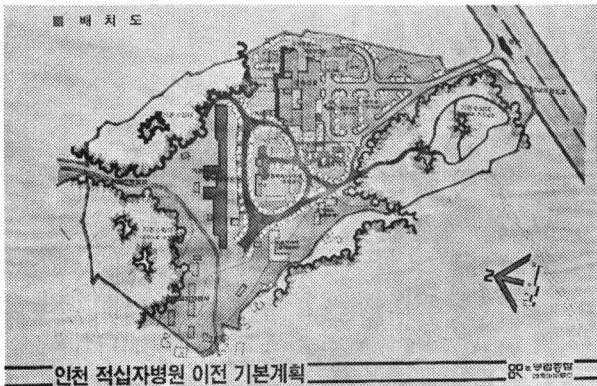
1956년 경기적십자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인천시 동구 송현동에 개원할 당시만 해도 시설이나 의료기자재의



李秉化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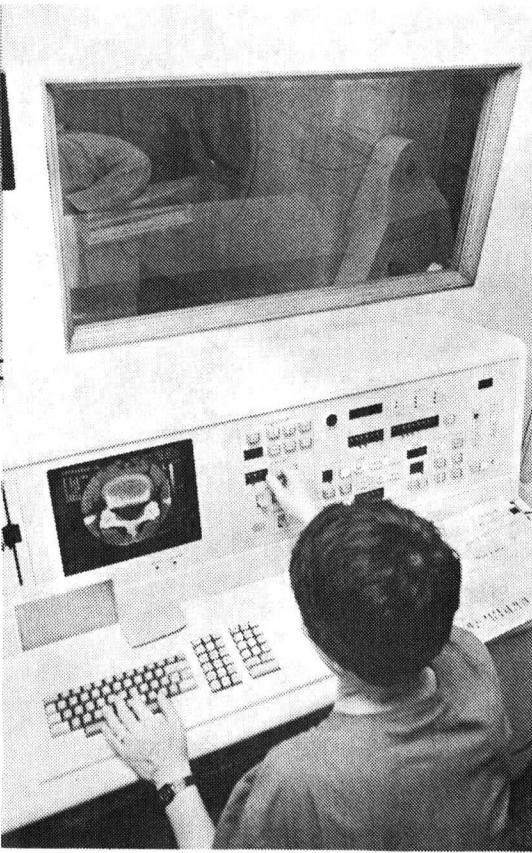


▲ 더욱 친절하고 새로워지는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결핵요양병원 자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전될 병원의 배치도.

▶ 전신용 CT를 비롯한 각종 의료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 연혁

1955. 7	인천시 동구 송현동에 연건평 126평의 공사 착공
1956. 7. 25	경기적십자병원으로 개원(28병상)
1974. 4. 19	부속 혈액원 개설
1977. 3. 30	현소재지로 신축 이전(43병상)
1977. 4. 8	인천적십자병원으로 명칭 변경
1981. 7. 21	현소재지에 연건평 153평 증축
1982. 4. 1	병원선 백련호 인수 서해 도서주민 무료 진료 실시
1985. 5. 10	종합병원으로 승격
1989. 5	병원선 백련호 경기도청으로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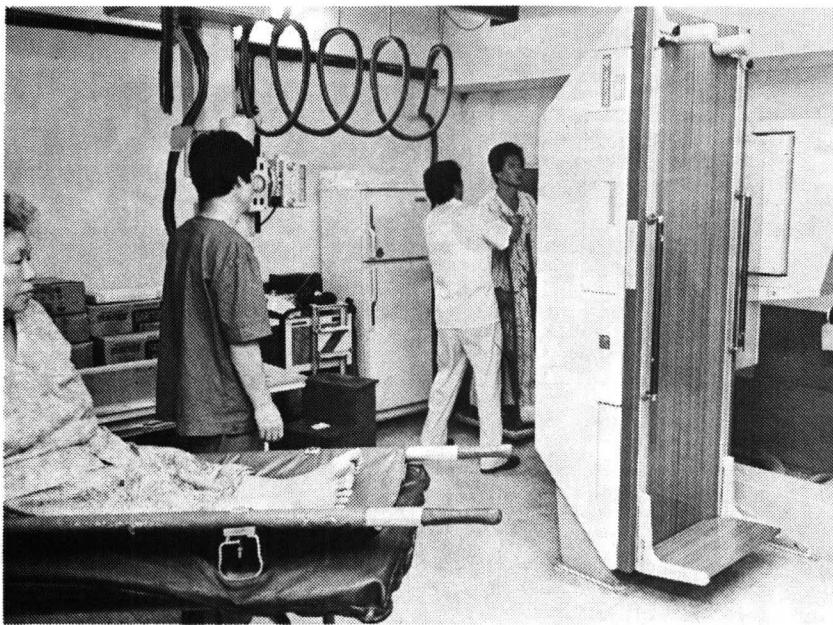
확보가 쉽지않던 때였다. 그러나 인천지역과 서해 도서주민들에 대한 진료활동과 공익병원으로서 일반주민들에게 심어준 이들의 노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현재는 인천 남구 송의동 341-21번지에 연건평 153

평으로 11개 진료과와 12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 도서지방 무료 순회진료 활동

이 병원이 지난 '86년 개원30주년을 맞아 펴낸 「仁川赤十字 病院報」에 의하면 '56년 경기적십자병원으로 개원당시 직원 11명에 28병상의 규모로 「병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아득한 분위기가 배어나오는 뾰족한 지붕의 조그마한 집」이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77년 현재위치로 이전하였고 명칭도 인천적십자병원으로 바꾸었다. 거듭되는 성장과 증가하는 환자를 하나의 건물만으로는 다 수용할 없어 '78년에 다시 신관을 증축하였다. '82년에는 적십자의 봉사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도서지방 진료선인 백련호를 인수받아 서해 도서지방 주민들에 대한 무료진료를 시작하였다. 이 병원선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및 X-Ray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무의총 도서지방 주민들의 진료와 응급환자 발생시 큰 공헌을 하였다. 도서지방 의료환경의 변화와 관리상의 문제로 지난해 경기도청으로 병원선을 인도



◀ 인천시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진료지원계획을 갖고 있다. 사진은 방사선실.

하기까지 지역사회 보건활동에 큰 뜻을 차지해 왔다.

### 공익성 지역성 특수성 살려

이 병원 李秉化 원장은 병원이 추구해야 할 과제로 공익성, 지역성과 적십자병원으로서의 특수성을 꼽는다.

『우리병원은 잘 아시다시피 적십자의 정신과 목적을 위해 세워진 병원입니다. 어느 병원이나 다 공익성을 갖지만 우리병원의 경우는 특히 공익성이 강조됩니다. 근래에 들어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병원의 규모가 커

지면서 일부 병원이 상업성을 띠지 않느냐는 우려도 생기는데 우리 병원은 그야말로 공익을 위한 병원이 되고자 합니다.

또 지역성도 중요합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적십자병원과 공립병원들이 지역사회에 절대적인 호응과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않지요. 지역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적십자병원만이 갖는 특수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민간병원에서 할 수 없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의료지원과 무료진료사업을 계속해가고자 합니다.』

▶ 임상병리검사실의 모습.



▶ 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환자들의 편의를 돋고 있다.  
원무과 업무전경.



실제로 이 병원은 이러한 취지에 맞게 현혈사업 지원, 지역주민 간염 무료검사 등을 실시해 왔고, 혈액형 무료검사도 곧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내에 있는 결인수용소, 장애자재활촌, 교도소 및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의료봉사도 계획하고 있다.

### 정책적인 지원 아쉬워

그러나 병원의 이러한 계획에 비해 정책적,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것이 아쉽다. 현재 대한적십자사 산하의 10개 병원은 독립채산제로 외부의 도움이 전혀 없이 운영되고 있다. 고가의 의료장비 및 재료, 인력증가 등 급속히 변하는 의료환경에 대한 투자가 민간병원보다 떨어지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점 중의 하나이다. 이 병원의 경우는 전신용 CT, 씨암X-Ray촬영기, 초음파 진단기, 생화학 자동분석기, 셀카운트기 등 최신장비를 고루 갖추고 있어 진료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점점 높아가는 환자들의 의료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만족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정책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리라고李원장은 말한다.

일본의 적십자병원이 원폭피폭자 치료, 성인병센터, 신장이식 클리닉, 구급의료센터 운영 등에 주력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공익병원들도 독자적인 특수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리라고 한다.

현재 계획중인, 결핵요양병원 자리로의 병원이전이 이루어지면 보다 전원적인 환경에서의 양질의 진료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 공익에 우선하는 근무자세

인천적십자 병원은 인천시내 10개 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 병원의 입구를 들어서면 「친절한 병원 더욱 친절한 병원, 새로와지는 병원 날로 더욱 새로와지는 병원」이란 원훈이 눈에 들어온다.

121명 직원들의 근무자세와 다짐을 한 눈에 보여주는 글귀이다. 적십자의 정신이 그러하듯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병원이 되겠다는 것이 이 병원 직원들의 한결같은 다짐이다.

『병원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친절하고 환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측으로서도 직원들의 복지문제를 우선하고 있고 업무의 원활과 우호적 관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계를 둘러싼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의욕적인 자세로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人道主義의 적십자 정신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공익병원으로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싶습니다.』 \*